

월간 증 현

'80 5월호



이상적인 성도의 가정

우리말에 「집」이라는 단어는 3가지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가옥(house)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가족의 생활터전을 의미한다. 또 하나는 가족(family)인데, 이것은 한 호적상에 등록된 사람들을 가르킨다. 또 다른 하나는 가정(home)인데 이것은 부부와 자녀 간에 사랑과 인격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성경은 이 사랑과 인격적인 교제의 공동체인 가정을 무척이나 중요시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시어 친히 가정을 만드셨고(창 2:18), 구약시대에는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으며(아브라함의 가정, 야곱의 가정, 이사야의 가정, 호세아의 가정등등),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역사를 이루어 가실에 있어서도 가정단위를 중요시 하셨다. (행 16:31).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고귀한 가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가정으로 꾸며 갈 수 있겠는가?

첫째는 가정의 주인이 분명해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중년 부부는 슬하에 자녀가 없다. 그런데 이 부부는 가족 소개를 하라는 부탁을 받을 때마다 항상 “우리 식구는 3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하곤 한다. 어느날 나는 그 남편되는 분에게 물었다. “어떻게 가족이 3사람입니까?” 그 분은 대답하기를 “나와 내 아내와, 그리고 우리 집 가장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3식구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듯이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한다.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신

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정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다는 말이다.

둘째는 가정은 사랑의 교실이 되도록 가꾸어야 한다. 혹자는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말한다. 실로 사랑의 교제가 끓어오른 곳이 가정인 것은 없을 것이다. 가정은 인간적인 혈연관계를 기초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다.

그러나 죄라는 것이 우리의 혈연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사랑의 교제를 불완전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의 가정은 혈연적 관계를 가정의 핵심으로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가정의 기초를 찾아야 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속에서 가정이 가꾸어져가야 하며, 그 사랑을 키워 꽃피우고 열매맺게 해야 한다.

세째는 가정은 훈련장이 되도록 가꾸어야 한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와 방법을 훈련 받아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엡 6:1-4) 가정은 자녀를 통하여 부모가 훈련 받고, 부모를 통하여 자녀가 훈련받는 상호 인격적 훈련 도장이 되어야 한다. 한 개인이 사회와 역사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가정에서의 훈련의 결과라는 점을 생각할 때 말씀안에서의 훈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같은 이상적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신다.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를 따라 행하는 가정이 받을 복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첫째는 수고의 댓가로 물질의 풍요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2절) 둘째는 부부생활의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실 것이며, (3절 상반절) 세째는 영적으로도 시온의 복을 누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5절)

충현의 모든 가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예수님을 가정으로 모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즐거워 한다면, 필경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복된 가정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며, 이웃에게는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게 되고, 온 가족 식구들은 물뿔듯 쏟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 (주잔)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전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 5월호 차례 —

제 8권 제 5호

통권 77호

권 두 언	이상적인 성도의 가정	주 간 · 2
이달의말씀	약속하여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다	김창인 · 4
지 상 특 강	현대청소년의 문제와 기독교의 역할	박성수 · 6

특집 / 부모와 자녀가 쓰는 글

월간 충현

· 아버지가 아들에게	최상규 · 10
· 아들이 아버지에게	최재석 · 10
· 어머니가 딸에게	배옥인 · 11
· 딸이 어머니에게	문영란 · 11
만 난 사 람	특별표창자-최석만군 이형수 · 12
보 고 서	월간충현 설문조사결과 편집실 · 13
편집실칼럼	부모의 위치에 대한 성경적 이해 오태용 · 14
찬송가감상	예수제로가면 기쁘리로다 김하진 · 14
도서정보	4월중에 들어온 도서 도서실 · 15
책 소 개	성령..... 김장근 · 15
기독교윤리	생활속의 윤리(경제) 김하진 · 16
평가와제언	제 2회 어린이성가대합창제를 참관하고 김하진 · 19
독 자 수 필	돈 조현명 · 20
신 앙 간 증	하나님앞에 겸손히 굴복 홍성욱 · 22
선 교 월 보	선교지 소식 · 기도제목 해외복음선교회 · 24
구 역 소 식	4월중 새 교우 · 결혼 · 별세자명단 편집실 · 26
권 찰 수 첩	성공적인 심방 김재창 · 27
교 계 소 식	월간교계뉴스 편집실 · 28
교 회 소 식	 편집실 · 29
답 한 다	효과적인 상담은 김하진 · 35
5월의행사	 편집실 · 34
편집하고나서	 편집실 · 34

표지설명 / 5월은 가정의 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버지 달이 있고, 또한 경로회, 꽃주일등으로 가정의 달 행사를 하면서 우리 다시 가정의 중요성을 새삼스레 느낀다. 어린이날에 초등부에서 실시한 운동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가사를
주신
사신
여호와께
하나라도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약속하여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다

〈히 4 : 1 ~ 13〉

김 창 인 목사

(프 교회 당회장)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복을 꼭 받아서 누리고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니까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혜와 권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람과 지혜로 인생과 우주 만물에게 필요한 것을 일초도 머뭇거림 없이 정지하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약속은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자비하심이 풍성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선을 행하며 악을 행한 자들의 고생을 만배나 갚아 주시고 악을 행하면서 악자와 어리석은 자를 괴롭힌 자를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한결을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고, 대한민국 백성을 여러번의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주시는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1) 승리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고 애굽 바로왕의 세력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과거에 병세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은 승리의 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승리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승리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승리, 주위 환경을 이기는 승리, 악마와 지옥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승

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2) 풍성한 재산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행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3) 후손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창성하고 후손은 제사장나라의 백성이 되며 만민의 복의 기관이 되는 후손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4) 평안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평강의 복을 주겠다고 평안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2. 약속이 이루어 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 원인이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중간에 변경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고,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저들 마음속에 “우리가 최고야!”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들은 교만으로 경솔하다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 회개는 못하고 원망만 하기에 저들은 약속한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2) 욕심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책임만 다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려는 욕심이 앞섰습니다. 한번, 두번, 계속하다 보니 양심의 등불이 꺼졌습니다. 양심의 등불이 꺼지고 욕심대로 살면서 영혼이 소경이 되었기에 약속한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3) 음란하였기 때문입니다

남녀간에 부부생활에서 깨끗한 것을 버리고 음란하다가 저들은 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4) 회개를 안하고 핑계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혼자 깨달아도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책망을 듣고 깨달아도 회개하여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핑계를 좋아 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5)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을 맡았으면 충성을 해야 하는데 충성할 생각을 안하고 사명에 붙어 온 권리행사부터 하다가 망했습니다.

6)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함을 얻었건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조반을 먹었건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로 숨을 쉬건만, 하나님께 영광돌릴 생각은 안하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7) 하나님을 반역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의심이 생기고 원수의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원수를 따라 가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필경에는 광야에서 망해버렸습니다.

3.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순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부요하신 재산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순종만 하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합니까?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첫째 '버리라'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라, 교만을 버려라, 우상 섬기던 구습

을 버려라, 좁스러운 편당싸움을 버려라, 버리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이 인격자가 되는 것은 버릴 것을 버린 다음에 인격자가 됩니다. 버릴 것을 못 버린 사람은 인격자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둘째 '행하라'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아라' "복음을 전해라" 버리라고 하신 다음에 행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셋째 '지켜라'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신용을, 믿음을, 양심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는 지키라는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네째 '바쳐라'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헌신을 말합니다. 물질의 십일조를 바쳐라, 네 생명을, 네 지체를 하나님께 바쳐라. 바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는 바칠 것을 깨끗하게 바칠 줄 알아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복을 받습니다.

2) 책임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되는 방법은 책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리가 생겼을 때에 권리 행사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맘흘려, 최선을 다해 책임에 충성해야 합니다.

3) 기도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에 기도하고 일을 진행할 때에 기도하고, 일을 마친 다음에 감사하며 보고하는 거도를 하고 이처럼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그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의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할 수 없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4) 하나님 영광 중심이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이 앞서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되면 원수가 손 못대고 자손까지 자유하며 번영하는 승리자로 세워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영육간에 부자가 되며 자손이 복을 받아 자손들이 부모보다 더 잘 나고 더 훌륭해지는 복을 받으며 영육간에 평안이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복을 받아 세상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살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현대 청소년의 문제와 기독교의 역할

박 성 수 집사

(교육학박사 · 서울대학교수)

□ 유대인 청년 에릭과 랍비

1974년 여름이었던 것 같다. 당시 필자는 미국의 미시간주에 있는 칼라마주라는 곳에서 유학생활동을 하고 있었다. 카운셀링이 전공이 돼서 그곳에 살고 있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볼 수 있었다.

그 중에 인상에 남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집단 카운셀링을 위해 필자는 열명도 안되는 대학생들을 모아서 그들이 인간과 인간사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를 상의하게 되었다.

프랑스, 캐나다, 애집트에서 온 유학생이 각각 한 명씩 있었고 나머지 학생은 모두 미국인 학생들이었는데 그중에 에릭이라는 키가 크고 공부를 무척 잘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이었다.

그러나 에릭은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종교로서 유태교를 믿지는 않고 있었다. 에릭은 한 학기가 넘도록 매주 2시간 정도 모이고 카운셀링 집단에 열심히 참석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전되도록 하곤 하였고 필자와는 무척 인간적으로 친근하게 되었다.

어느날 에릭은 모임이 끝난 후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개인면담을 청하는 것이었다. 그는 대학 3년동안 철학과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다른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라틴아메리카제국의 문화 특히 가치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대학 1학년때부터 평화봉사단으로 브라질에 갈 생각을 하고 그 준비를 했으며 스페인어는 물론 그곳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준비를 했는데 이제 4학년이 되었으니 평화봉사단

에 지원을 하여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4년간 생각하고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인생을 유태교회당에 가서 랍비와 상의를 해야 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유대인은 종교로서 유태교를 믿진 아니건 간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랍비와 상의하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토요일에 유태교회당에 가서 랍비를 만나 나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온 에릭은 자신이 3년간 그렇게도 열심히 준비하고 희망하던 평화봉사단 지원을 그만두고 그 대신에 대학원에 진학하겠다는 결정을 전하여 주었다. 랍비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 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였다. 에릭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유대인의 전통은 교육받는 것에 있습니다. 평화봉사단 같은 것에 가서 봉사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유대인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 진학하여 공부를 더 하여야 될 것입니다.”

에릭은 10분정도조차 안되는 시간에 랍비와 나눈 대화에서 랍비가 지시한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그 랍비는 정말로 카운셀러보다 훌륭한 카운셀러이었고 어떤 교사보다도 훌륭한 교사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온 민족이 누구나 가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상의하고 또 오랜 역사 속에서 축적된 지혜에 따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유대인들은 지니고 있는 것이다.



□ 청소년의 문제

아득한 옛날 인류가 생활하던 동굴속에 “요즈음 젊은이들 건방지고 속까지 썩었다”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다. 문명이 발달되어 가옥에서 생활하기 전인 동굴생활의 시대에도 청소년의 문제는 꽤나 심각했던 모양이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의 전기나 자서전을 보면 옛날에도 청소년은 가정과 교회가 쉽게 다룰 수 없는 많은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거스틴도 어머니의 속을 무척이나 썩이는 “문제아”이었고 잔디도 자살을 기도한 일이 있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적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청소년문제가 제각각 다른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어느시대건 청소년이 지닌 문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로 청소년은 “일한다”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산업기술이 발달되면서 어떤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해서 점점 더 오랜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직업에 따라서 장기간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있고 또 점차로 더 많은 교육을 요구하는 직업들이 생기게 되었다. 요즈음에 새롭게 등장되는 어떤 일은 박사학위만을 가지고도 안되기 때문에 박사학위 이후의 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익 외국에는 여러해 전부터 생기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산업화되어 가면서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 늘어 갈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중학교까지를 의무교육으로 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현대의 청소년은 원시시대에 일만하면 되던 것이 점차로 공부를 해야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의 청소년은 “일한다”는 것에 관련해서 학교공부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를 지니게 되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고 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원하는 것 만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의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개 시험때가 되면 필요이상으로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된다. 시험불안은 많은 학생들이 지닌 공통의 심리적 문제로 되어 가고 있다. 중 3명이니 고 3명이니 하는 것은 이러한 시험불안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닐 연령의 청소년이 직장 등에서 일을 하게 되면 직장의 일에 충실하려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청소년들은 자신이 직장의 일보다 다른 것 즉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였던다면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자기패배적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어떤 경우이건 오늘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학교의 공부나 직장의 일에서 보람과 만족을 느끼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만과 원망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인간의 마음은 거칠어지고 황폐화되어 가게 마련이다. 오늘의 청소년들이 범 죄나 탈선의 길을 가는 것은 “일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로 청소년은 “사랑한다”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빵이나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고 또 사랑을 해야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사랑은 일차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부모를 사랑하는

□□□...불행한 사실은 한국사회가 청소년에게 일이나 사랑이 지니고 있는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가치관을 확립시키는 일에 별로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비록 피상적으로는 비천해 보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사회에 도움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드문 것 같다.□□□

청소년이라야 친구들과도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가정에서 부모 형제자매 등과 원만하고 화목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많은 경우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 곤란과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최근의 심리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등이 성격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의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에서 원만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기에 필요한 사랑의 경험을 필요한 것 만큼 하지 못하고 있다. 수용과 이해대신에 거부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자신감보다는 자기회피에 빠지게 되고 자아정체감(自我正體感)보다는 자아혼동감(自我混同感)에 빠지게 되던 일이 많은 것 같다.

일과 사랑에서 긍정적이고 창조적 경험을 통해 자아성장을 이룩하고 성공과 만족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오늘의 청소년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을,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지니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오늘의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청소년은 좌절감, 회의, 증오심을 지니게 되기 쉬운 상황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좌절감과 회의를 극복하려는 청소년의 몸부림이 있게 마련이고 이 몸부림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보다 환상적이고 극단적인 생각들, 귀로 듣기에는 아름다우나 실제로는 고통과 패배를 초래하는 이상주의로 흐르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 한국청소년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

우리나라의 청소년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누구와 어떻게 상의하고 있는가를 연구한 일이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약 절반의 청소년은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결정한다고 한다. 또 약 절반의 청소년은

문제를 부모나 교사 또는 친구들과 상의를 하나 그렇게 만족할만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또 그들과 상의한다고 하더라도 충고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는 예외적인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현대의 청소년은 목자없는 양떼처럼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청소년을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 교인의 가정이나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

첫째로 청소년이 교회와 와서 인간으로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반조건을 갖추어 나가야 될 것이다.

종교로서 유태교를 믿지 않는 예적이 유태교의 랍비를 찾아가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고 랍비의 충고를 따르는 것처럼 한국의 교회는 모든 한국 청년이 찾아와서 신뢰하고 의논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전통을 새롭게 세워나가야 될 것이다. 기독교적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청소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교회에 와서 의논하면 정말로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다는 신뢰감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교회란 길 잃고 헤매는 모든 인간에게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른 지혜와 행동을 배급하는 곳이어야 될 것이 아닐까? 이것이 아마도 민족복음화의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는 교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의 생활전반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생활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리와 절차에 대한 지식을 축적할 뿐 아니라 그 원리와 절차를 청소년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원조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위기개입(Crisis-intervention)이나 각종 카운셀링의 이론과 기법들이 동원될 수 있으나 그 목적과 절차는 기독교의 근본 원리에 따르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모든 청소년이 교회에 와서 인생의 문제를 의논할

□□□...이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사이에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형태의 상호작용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청소년을 도와 주어야 될 것이다. 사랑과 미움, 믿음과 불신, 소망과 절망이 바로 인간관계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것은 곧 삶의 실패가 된다는 점을 젊은이들이 인식하며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치체계를 형성하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

수 있을 정도로 신뢰를 받고 또 사람들이 기독교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 민족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민족복음화의 의지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원하는 것과는 일치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로 청소년이 창조적이고 건설적으로 일하고,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형성 또는 유지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지혜와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될 것이다.

청소년은 “내가 누구인가?”하는 자아정체성에 대한 질문만이 아니라 “왜 일(또는 공부)을 하여야 되는가?”에 관련된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뿐 아니라 “왜 어떤 사람을 사랑하여야 하는가?”하는 문제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 갈것이나?”하는 문제도 지니고 있다. 불행한 사실은 한국사회가 청소년에게 일이나 사랑이 지니고 있는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가치관을 확립시키는 일에 별로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비록 피상적으로는 비천해 보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사회에 도움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드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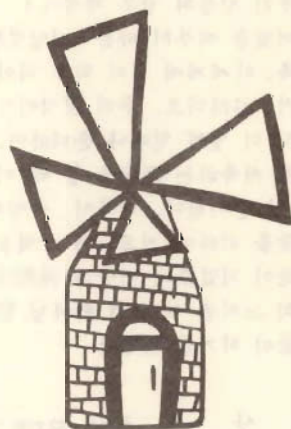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소명의식을 청소년이 지니게 될 때 우리사회는 좀더 살기 좋고 소망이 많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천해 보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낮고 천한 것이 아니라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청소년이 지니고 있을 때 청소년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또 생산적으로 일(또는 공부)을 하게 될 것이다. 일에서 소명의식을 못느끼거나 창조적 활동을 못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인생에서 실패하게 될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가정이나 교회는 이 땅에서 하게 되는 어떤 일도 그것을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사업이며 민족과 국가의 일이라고 사명감을 청소년이 지닐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그뿐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사이에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형태의 상호작용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청소년을 도와주어야 될 것이다. 사랑과 미움, 믿음과 불신, 소망과 절망이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것은 곧 삶의 실패가 된다는 점을 젊은이들이 인식하여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치체계를 형성하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빛나는 청소년, 방황하는 청소년, 직장에서 일하는 청소년, 학교에서 배우는 청소년, 교회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려는 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이 일과 사랑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문제는 바른 방향으로 해결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할 수는 없어도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는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든 사람에게 깨우쳐 주어야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과 사랑에 관해 예수님께서 가르친 교훈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 의 교회와 가정이 무엇에 앞서서 할 일인것 같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믿음의 장부로

썩썩한 믿음의 장부 재석아!

이제 만물이 새 생명을 얻고 움트는 봄이 오고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기며 뛰어노는 희망에 찬 5월이 왔구나.

우리 재석이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귀한 선물로 보내 주신 지도 벌써 열두해가 되었구나. 모든 만물의 푸르름과 싱그러움을 보여 주는 5월이 오면 이 아빠는 더욱 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탄의 소리가 저절로 나오곤 한단다. 우리 재석이기도 이제 으젓한 6학년생. 참 세월은 빠르다. 이렇게 아빠가 재석이에게 켄을 들고 보니 웬일인지 지난 날의 일들이 새삼 생각 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재석이를 우리 가정에 귀한 선물로 주셨을 때 이 아빠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세상 길에 살 때란다.

주일만 되면 너희들(재석 정아)을 데리고 등산이며, 낚시며 돌아 다니던 생각을 하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너희들에게 좀 더 일찍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지 못한 이 아빠는 죄스럽기만 하구나. 그러나 너희 어머니께서는 늘 하나님께 『이 아빠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십시오』하고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간곡히 기도 하셨단다. 어머니의 간곡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 아빠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며 너희들도 다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볼 때 아빠는 기쁜 마음 금할 길이 없단다.

우리 믿음의 장부 재석아!

어렸을 때부터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에 빛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는 성공자로서 자라다오. 우리 재석이가 주일이면 다른 날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 준비하며, 주님 성전에 나아가기를 재촉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아빠는 하나님께 감사 할 뿐이란다. 더욱이 주일학교 구역장으로서 친구들과를 위하여 기도하며 구역을 돌볼 수 있는 우리 아들이 되었으니 더욱이 기쁘다. 말은 바 책임을 최선을 노력할 다 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받는 아들이 되기를 바란다.

최 상 규 집사 <유치부 부장>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자하신 우리 아빠

아빠! 안녕하셨어요?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언제나 인자하시고 다정하신 아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며 편지를 드리려고 생각하니 웬지 어렸을 때의 일들이 생각나 혼자 웃음을 머금고 생각에 잠겨 봅니다. 인자하신 우리 아빠! 아빠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키워 주셨지요. 회사에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시면 어머니께서 정성들여 해 놓으신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는 피곤하신 것도 잊고 저희들과 놀아 주셨지요. 저와 태권도, 팔씨름 등을 해주시던 일들이 생각 나세요?

옆에서는 귀염둥이 동생 정아가 아빠와 나를 번갈아 가며 응원을 하곤 했지요. 어린 동생 마음에도 어느 한쪽만을 응원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양쪽 다 응원을 했지요.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에 일인것 같습니다. 저희 네 식구는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하여 강원도에 있는 파로호에 낚시 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버스도 타고, 배도 타고, 아빠 친구분 가족들과 같이 밤낚시 가서 잉어를 잡던 일 등이 생각나는군요. 지금의 저희를 생활과는 좀 달랐지요.

아빠 난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할머니께서는 왜 우리 아빠를 어렸을 때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셨을까요? 그리고 보니 저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빠와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일요일이면 온 식구가 아침 일찍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작자 맡은 바 일들로 바쁘게 지내며 늦게까지 교회에서 일을 보시는 아빠를 뵈올 때, 옛날과 같이 놀아줄 시간의 여유가 많지 않아도 하나님 품에서 생활하시는 지금의 아빠가 더 좋은 걸요. 아빠! 저희들이 잠자리에 들면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저희들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주시곤 하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여긔나지 않는 아들이 되겠어요. 더욱 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승리자가 되겠어요. 아빠 그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 하시기를 기원하며..... 안녕

최 재 석 <초등부 6년>

어머니가 딸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 축복 아래 너를 잉태하고 괴로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너를 얻어 그간 교회의 그늘아래 너를 키워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 드린다.

어린 대학생이 되어 주일에 적은 재주로 봉사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여간 대견스럽지 않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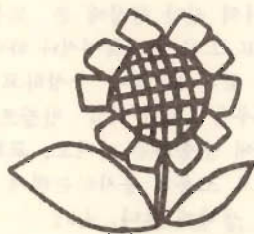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너를 키워오면서 너에게 수 많이 저질렀을 무례함과 노엽게 하였던 일들을 찾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맘으로 너에게 용서를 빈다.

바로 네가 태어나 딸임을 확인한 후부터는 아가서를 즐겨 읽었었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인정받게 키우기 위함이었단다.

아가서 5장 10절로 16절을 읽어 보려구나.

그리고는 에스더서였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외우도록 한 적도 있었지. 결코 외모만이 아름답기를 원함이 아니라 내면의 사람이 이같이 아름답기를 바라고 그 열매가 에스더 같이 어려울 때 미약한 여자가 민족을 구하는 큰 일을 하나님께로 응답받는 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겠니? 더 나아가서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게, 칭찬받게 즐겁든지, 슬프든지 얻든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하신 말씀대로 모든 일에 예수님 닮기를 바라는 마음이 최대의 희망이 아니겠니? 아무쪼록 나의 딸들은 “궁전의 식당대로 아름답게 다들은 모퉁이 돌과 같기를……(시 144편 12절)” 바라는 마음으로

배 옥 인 집사 (영아부 부감)



딸이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

어머니께 드리는 글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군요. 벌써 제가 대학 3년 입니다.

이제 많이 컸어요. 저를 이렇게 신앙 속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해 주신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키우시느라 20년을 고생하신 어머니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모두들 부러워하는 참 믿음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딸이 되어라”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전에는 그냥 흘려보냈던 말이 지금은 새삼 다짐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전 몸은 다 컸는데 마음은 아직도 많이 자라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제게 닥친 모든 일들을 나혼자서 거뜬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머니의 마음도 다 이해할 것 같지만 때면 어머니와의 충돌을 보면, 또 그 결과 나의 생각이 어머니의 생각보다 더 그른 것이 많은 것을 보면, 제가 아직은 생각이 부족한 게 많은가 보죠. 여대생 3년이면 이 세상에서 높아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실수 많고 고집 센 어머니의 말말이지만 그래도 어머니께 할 말은 있나봐요.

이제는 마치 처음으로 학교에 혼자 보내는 어린이가 같이 불안한 마음은 건어 버리세요. 물론 시대가 시대니 만큼 나쁜 길로 가기 쉽고 본의 아니게 위험한 일이 닥칠지 모르니 어머니의 마음이야 항상 불안하고 걱정 되시겠지만 온실 속에서만 자란 꽃이 금방 시들어 버리듯이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가며 더욱 단단히 주님과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저를 보니 과연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대로 주님께 사랑 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딸인지 제 자신을 돌아켜 보니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어머니! 아직은 제가 어머니께나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더라도 어머니의 말씀대로 또 나의 바라는 대로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꼭 훌륭한 딸이 되겠어요.

문 영 란 (대학부 3년 · 영아부 교사)

* 이달에 만난 사람 / 고등부 최석만군 *

□... 지난 5월 11일 저녁예배시간에 있었던 모범교사 표창식에서 특별표창을 받은 고등부 학생이 있었 ...□
 □...다. 특별표창의 내용을 들은 모든 교인은 예배시간중임을 잊고 모두 박수로 특별표창을 받는 최석만 ...□
 □...군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특별표창을 받은 최군은 지난 한해동안 학교에서 한 한급 60명을 ...□
 □...몽땅 그리스도에게로 이끈 예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
 □...볼 수 있었다. 월간충현 편집실에서는 최군을 만나 자세히 여러 교우들앞에 소개하는 바이다

한 학급 60명 전원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

지난해 3월, 영등포고등학교에 입학한 최군은 학급전원을 그리스도화하기로 뜻을 정하고 매일 점심 시간에 학교 뒷산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산에 갈 수 없는 날은 책상에 앉아 성경을 읽거나 혼자서 기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자 주위에서 3~4명의 크리스찬 친구가 찾아 오게 되었고 그들은 서로 학급을 모두 전도하자고 약속하고 그 기도운동은 보이지 않게 퍼지게 되었다.

전도는 지금해야

최군이 이런 뜻을 정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현재 봉신중앙교회의 장로님으로 계신 최군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늘 말하곤 했다. "전도는 언제나 현재의 입장에서 누구든지 하여야 한다. 커서 어른이 된 다음에 한다면 너희 학생들은 누가 전도하겠느냐" 가정에서 이처럼 아버지의 교육을 받아온 최군은 지난 한해를 전도의 해로 정했던 것이다.

전도를 하기로 작정을 했지만 막상 하려 드니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선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은연중에 알리기로 하고 책가방속에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니며 틈틈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곤 했다. 또한 학급내의 굵은 일을 술선해서 하기 시작했고 될 수 있는 대로 판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얼굴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굵은 일을 술선해서

학급의 반장이고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는 그의 주위에는 늘 친구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처럼 현실적으로 학급 일을 감당하고 친구들을 대하자 그 행동은 자신도 모르게 많은 다른 친구들에게 큰 감명을 주게 되었다. 그때부터 최군은 그의 주위의 친구

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었고 그것을 그들은 어렵지 않게 받아 들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1학년이 끝나는 지난해까지 60명중 58명이 교회에 출석하는 명실상부한 크리스찬학급이 되었던 것이다. 나머지 2명은 금년초에 가졌던 고등부 동기수양회에 최군이 선배들의 만류와 강압속에도 굴하지 않고 동기수양회의 모든 시간에 참석하는 것을 보고 감동하여 자신들이 자진 교회에 출석하게 됨으로 60명 전원이 크리스찬이 된 것이다.

드디어 60명 전원을 교회로

이처럼 한 학급 60명 전원이 크리스찬이 된 후 2학년에도 그 학급이 그대로 진급 같은 반이 된 그들은 매일 아침 한시간씩 1학년 후배들을 위한 학습지도 시간을 통해 후배들에게 학습지도 뿐만 아니라 1대 1의 개인전도의 시간을 갖고 전학급 크리스찬화의 전통을 심어 주고 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학급을 중심으로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기도회로 모여 전 영등포고등학교의 크리스찬화를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제 이 모임은 「밀알」이란 이름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모이게 되었고 크리스찬 선생님들은 물론 불신자인 교장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도 참석하곤 한다.

매 맞으며 외운 성경

최군 한 사람을 통하여 한 학급이, 나아가 한 학교가 그리스도로 물들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나를 생각해 볼 때 최군이 한 말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어릴 때 아버지에게 매를 맞으며, 또는 상을 주는 재미로 외웠던 성경의 위대한 장(章)들이 오늘날 나의 신앙 형성에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곳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자기의 맡은 바 일에 충성하고 있는, 그래서 학교에서는 우등생이며 학급 반장으로, 가정에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도, 교회에서는 면례회 문화부장으로서 조용히 봉사하는데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본다. (*)

대담·정리 / 이형수집사

월간충현에 관한 설문 결과

모두에게 유익. 큰 관심 있어

지난 4월 6일(일) 정기제직회시 월간충현 편집실에서는 월간충현에 보다 유익한 편집과 일반 교인들의 관심 참여여부를 알아 보기 위해 5개항의 설문을 작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436명이 제출한 설문 응답을 분석하여 볼 때 월

간충현은 모든 충현 교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대부분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설문 조사결과 및 간단한 분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정리

번호	설문	교역자	장로	권사	납집사	여집사	기재안함	계	%
1	나의 직분은?	2	16	102	88	178	50	436	100
2	가. 많은 도움이 된다.	2	12	79	57	130	29	309	70.9
	나. 조금 도움이 된다.		4	15	25	32	15	91	20.8
	다. 그저 그렇다			6	5	12	2	25	5.7
	라. 전혀 도움이 못된다.			1	1	3	4	9	2.1
	마. 무응답			1		1		2	0.5
3	가. 거의 다 보는 편이다.	2	6	58	37	89	20	212	48.6
	나. 몇개만 본다.		10	34	45	71	25	185	42.4
	다. 제목만 본다			7	6	15	2	30	6.9
	라. 전혀 보지 않는다.			3		3	3	9	2.1
	마. 무응답								
4	가. 페이지를 늘리고 발전시키는 게 좋다.	1	5	30	41	65	20	162	37.1
	나. 현재 상태가 좋다.	1	10	54	40	89	25	219	50.2
	다. 지금보다 축소하는 것이 좋다.		1	6	3	7	5	23	5.3
	라. 무응답				12	4	17	32	7.4

〈분석〉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간충현은 모든 충현 교우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91.7%)는 것이 확실하며 또한 내용을 다 보거나 몇개만이라도 보고 있다(91%)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발전을 위한 지면확대 문제에 있어서는 37.1%가 확대를 또 현상유지가 50.2%로 과반수를 넘는 것을 보아 현 상태에서 보다 내용을 충실히 하는 편집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다. 이런 이유는 새성전 건축의 시급성을 위해 성전건축을 위해 비용지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인 것 같다.

또 표 2와 비교하여 볼 때 표 2의 내용이 거의 다 월간충현의 내용면을 언급,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게재를 요구하고 있어 현상에서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표 2〉 월간충현에 대한 요망사항

월간 충현에 대해 한마디/라는 5번째 항에는

교역자 1명, 장로 3명, 권사 3명, 납집사 35명, 여집사 23명, 제 65명이 단편적인 이야기를 적어 주었다.

그 이야기를 관계 있는 것끼리 묶어 분류해 보면,

1	교회 및 교인소식난을 확대하자	10
2	간증기사를 많이 실자	12
3	성경공부를 위한 기사 및 성경강해	10
4	정기적인 일자에 발간	7
5	성전건축 관계 진행사항	3
6	페이지를 늘여서 더 잘하자	3
7	구역공과 게재	5

등이 나왔고 그외에 1) 배포를 합리적으로 2) 교회의 진로를 제시하자 3) 광고를 더 많이 실자 4) 독자 투고란 및 주교학생들을 위한 문단설치 5) 이민간 교우들의 소식 등의 이야기가 있었다

* 평생을 갇힌 *

부모의 위치에 대한 성경적 이해

오 태 용

요즘 민주화의 거센 바람에 위엣 권위가 휘청거리고 있다. 인간이 최초로 접하는 권위는 가정이라는 울 안의 부모인데 이러한 사회현상이 최후의 보루인 가정으로까지 파급된다면—기실 서구화의 영향으로 부모의 권위는 날로 무너져가고 있다—문제는 심각하다 못해 세상 종말을 보게 될 것이다. 부모의 위치를 확인해 보려는 소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구속 받은 성도가 할 일을 포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마22:37-40)

이것의 구체적 표현이 십계명인데 그것을 분석하면 1-4계명이 전자, 6-10계명이 후자의 행동양식이다. 그럼 제 5계명은? 왜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를 한가운데 제5계명으로 주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배려가 작용되어 있다.

내가 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인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어찌 지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남인데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 사이에 “부모”라는 존재를 위치시켜 구체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이의 상징적 표현으로 제 5계명을 한가운데에 설치하신 것이다. 즉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함으로써 안보이는 하나님을 사랑케 하고, 가장 가까운 타자인 부모를 사랑함으로써 도저히 내 몸 같을 수 없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신 것이다. 부모를 보면서 눈에 안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임을 24시간 연습하고, 나 이외의 존재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임을 24시간 연습하는 것이다.

이렇듯 부모의 위치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위치를 넘어서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에 준하는 높은 위치이며, 수평적으로는 이웃에 준하는 가까운 위치이다.

따라서 우리 신자는 육친의 부모가 아무리 못나고 무능하고 멸시받을만 하더라도 그 위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고(물론 주 안에서) 그를 공경해야 할 것이다.

* 찬송가 감상 *

예수께로 가면 기쁘리로다

예수께로 가면 기쁘리로다
걱정 근심대신 재미 많도다
예수께로 가면 기쁘리로다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도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있는 달이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수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올 때 제자들이 책망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말씀하시기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고 하였다.

“예수님께로 가면” 이 찬송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작시되었다. 땡인 작시자로 널리 알려진 「크로스비」 (Fanny Jane Crosby, 1820-1915) 여사가 어린이들을 위하여 작시하였는데 그는 찬송가 작시중 어린이를 위한 시가 많아 어린이 성가 작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다정스러운 모습을 이 찬송가에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예수님은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말씀도 많이 들려 주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걱정 근심 다 잊어 버리고 재미있게 들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 올때 누구든지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로 가면 접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사죄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죄의 점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나아갈 때 거절하지 않는다.

어찌 그 뿐이라! 그의 사랑스러운 품안에 영접해 주시며 그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 찬송은 조금 빠른 뱀포로 기쁨에 넘쳐 불러야 한다. 그리고 재미있게 불러야 할 것이다.

예수께로 가면 언제나 기쁨이 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이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자!

김 하 질 목사 (성가부·성경학원지도)

* 도서정보 *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4월중에 들어 온 도서 —

I. 구입도서

1. 참고서

- 1) 기독교성서백과대사전: 성서교재간행사간.
1980, 912페이지, 26cm 3권

2. 교회사

- 1)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랜워크, 에이 엠 저. 홍치모역. 생명의말씀사. 1980, 244페이지.
- 2) 근세 영국의 종교와 정치: 홍치모편저. 성광문화사. 1980. 253페이지.

3. 선교 및 역사

- 1) 역사신학과 선교신학연구: 김명혁저. 총회신학대학. 1980. 366페이지.

4. 설교집

- 1) 신자와 생활: 이근구저. 그루터기사.
- 2) 수원노회목사설교집: 그루터기사.

II. 기증도서

1) 정홍식 집사 도서 200여권 기증

지난 3월말 본 교회 정홍식 집사님께서 소장하고 계시던 200여권의 도서를 본 교회 도서실에 기증하셨다.

2) 제22대 장로 장립 기념도서—

지난 5월 1일에 장로장립을 받으신 제22대 장로님(이장업, 김원선, 오진국, 박치민, 정하우, 이병학) 일동이 장로장립을 기념하여 도서비 100만원을 내셨다.

3) 박성수 집사 도서 80권 기증—

본 교회 새가정부 부장으로 수고하시는 박성수 집사님께서 모친 권복남여사의 회갑을 맞이하여 본 도서실에 박성수 저 「문제행동의 교육과 치료」와 백영사에서 발간한 교육신서 79권(합80권)을 기증하셨다.

* 책소개 *

에드윈. H. 팔라 지음. 최낙재 옮김

성 령

성광출판사 · 1973 · 218페이지 · 580원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세글자 만큼 우리의 삶의 의미와 지배를 가지는 말은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하셨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분이시며 무엇을 하시는가? 이러한 질문은 신자로서 더 없이 중요한 질문이다.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세상은 존재치 않을 것이며 그의 지속시키심, 붙들심, 보존하시는 일이 없으면 이 세상은 충돌하여 없어질 것이다. 이와같이 성령 없이는 신자는 중생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 삼위일신 성령님에 관하여 “그분은 중생 시키시는 분이요, (요 3장) 새롭게 하며, (딤후 3:5) 거룩하게 하며, (살후 2:13; 뱀전 1:2) 인도하며, (롬 8:4) 사람속에 거하시며, (요 14:7; 롬 8:9; 고전 3:16) 복음을 증거하시며, (살전 1:5, 6) 마음을 열게하며, (행 16:14) 열매를 맺게하며, (갈 5:2) 처음 세상을 창조 하셨으며, 재 창조에 해당하는 중생과 성화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실도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에게 있어서 삼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거나 또한 편견과 자저 경험과 체험의 관점에서 규정지어 생각하며 그의 행하심도 그것에 국한시키는 잘못을 왕왕이 본다.

이런 관점은 성경적이지 아니고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으로 시작하거나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시작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하여 깊은 연구와 지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하나님의 겉은 것에 대한 우리의 지식욕을 만족 시키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의 위대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영적 성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가지기 위하여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판마 목사님의 “성령”을 소개하고 싶다. 번역은 종신신약학 교수였던 최낙재 교수님이 맡으셨다.

김 장 근 전도사 (유년부 부지도)

생활속의 윤리 (5)

〈경제〉

김 하 진 목사

〈성가부·성경학원지도〉

* 연재순서 *

- | | |
|-------------------|---------------|
| 1. 기독교 윤리란 무엇인가 | 2) 하나님 나라 형성 |
| 2. 구약에 나타난 윤리적 사상 | 8. 생활속의 윤리 |
| 3. 신약의 윤리관 | 1) 가정 |
| 1) 신약의 도덕적 이상 | 2) 결혼 |
| 2) 예수님의 교훈(윤리관) | 3) 이혼 |
| 4. 인간과 윤리 | 4) 성(性) |
| 5. 초대교회의 윤리적 배경 | 5) 경제 경제 |
| 6. 윤리적 척도인 십의 십 양 | 9. 사회속의 윤리 |
| 7. 기독교의 도덕적 이상 | 1) 기독교와 인종문제 |
| 1) 사랑의 실천 | 2) 국제질서·전쟁·평화 |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가 정생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경제생활일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적 기반이 없이는 인간의 지상생활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생활이라든가, 경제질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는 줄 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영적생활이나 도덕적 이념, 지적인 성취 또는 심미적 감식 등과 같은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면서도 이상에 말한 모든 것을 포함한 인간생활 전체에 깊이 침투되어 있는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는 인간생활에 있어서 물질적인 즉 돈, 재산 등 부와 연결되며 동시에 노동과 직업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다.

경제생활이란 것은 물품의 취득(acquisition), 점유(possession), 사용(use)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필연적으로 노동과 자본 그리고 이들의 관계 조성을 위한 제도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가 없는 줄 안다. 다만 이에 관한 성경적인 근거를 고찰하고 이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신약에서의 경제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경제생활에 대한 교훈보다는 오히려 가정생활에 관한 교훈이 많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경제 제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신약에서 경제에 관한 교훈들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바울이 스스로 일하여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남에게 패를 끼치지 말라(살후 3:6-12)고 한 말이다. 그러나, 노예는 진심으로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골 3:22, 엡 6:

5)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어떤 사회제도 자체에 관하여 집중적인 비판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상 오늘날 비판의 대상이 되는 노예제도 같은 것도 천여년동안 지속되었던 사실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경제적 착취에 대하여 날카롭게 선포되었던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사회적, 경제적 정의의 성경적 근거를 찾으려 할 때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등의 말에서 찾으려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신약에서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 등에 관하여 침묵을 지켰을까? 우리는 여기서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기독교적 메시지가 믿음과 사랑을 강조하는데 치중했던 관계로 사회정의의 문제는 그 그 속에 감춰 버렸던 것이다.

둘째, 종말 신앙이 신약윤리를 지배했던 것이다.

현존 세계의 신속한 종말을 대망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초대교회 또는 예수님의 윤리적 통찰을 왜곡시킨 것은 아니었으나 그것이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질 전망을 단축시켰으며 성도의 중요한 관심이 사회제도 보다는 개인의 영혼구원 문제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셋째, 구약 선지자들의 예리하

게 파헤친 사회적 양심과 초대 교회가 가졌던 태도를 대조해 보는 데서 얻을 수 있다.

성경에 나타난대로 보면 신약 성경 저자들은 사회적 기구의 보존, 정부의 행정, 국제문제, 사회개량, 경제조직 등에 있어서 기독교의 높은 도덕적 원칙을 적용할 의도라든가 의무를 느끼지 못한 것 같다. 그것은 그 당시 초대 교회가 형성되던 로마 정부의 통치 안에서 영세한 경제적 생활을 누렸던 환경적 제약에도 그 요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그들의 관심사가 영혼 구원을 통한 교세의 확장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정치적 보존과 경제적 번영을 위하여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부정에 대하여 용기와 책임을 가지고 군왕과 백성들을 상대로 도전과 충고를 선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초대 기독교 사회에서는 사회 문제에 관하여 비교적 방관했던 태도를 보였던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실정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언자적 위치에서 그의 말씀과 교훈을 통하여 그의 경제관을 피력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이 다른 사회적 문제와 마찬가지로 경제(재산)문제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어떤 경우에는 경제계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책망을 한 일도 있다.

(Georgy, F. Thomas, 「Christian Ethics and Moral philosophy」)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소유욕에 대한 책망이었다. 즉 “하나님과 mammon(돈)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마 6:24)든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풍부함에 있는 것

이 아니다”(눅 12:15)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두라”(마 6:19)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눅 12:16-21)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자에 대하여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눅 11:39)라 하였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마 19:23-24)고 말씀하시므로 물질적 부만 추구하는 자들의 정신적 위기와 유혹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물질 생활에 대하여 경시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마 6:11)라고 말한 것은 정신적인 양식을 말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 양식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산상 교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마 6:25)고 하신 것은 그러한 것들이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마 6:32)고 말씀하셨다.

이상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간 존재에 있어서 정당한 물질관을 가르치려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물질은 인간 생활의 방편이지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이 기독교가 수천년 동안 내려오면서 물질을 정직하게 취득하여 사랑을 베푸는데 사용된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으며, 위대한 사회적 감화와 영향을 끼친 귀중한 유산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예수님의 물질에 관한 교훈에서 기독교의 경제관을 확립하고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경제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독교적 경제 윤리라 하겠다.

2. 기독교적 경제관

그러므로 기독교적 경제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칭지기적인 사명」(stewardship)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서 모든 물질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위탁된 것이라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십일조’라는 산술적 기초 위에서만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부담도 큰 것이다.

그러나 부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많은 것을 위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주인인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 이러한 사람은 기독교 경제 윤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 의 것이로다”(시 24:1)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에게 위탁되었다는 원칙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다.

그렇다면 사유재산제도에 관한 우리들의 견해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유재산이란 경제권의 얼마를 각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일치된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성경과 교회 역사에 나타난 사상의 중요한 경향은 어느 정도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며 그것이 또한 기독교적이라 말할 수 있다.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유 재산의 정당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선지자들이 가장 신랄하게 공격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남의 재산을 착취 또는 침해하는 행동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신약 사도 행전에 보면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 교인들이 얼마동안 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한 일이 있었다. (행 2:44, 45, 5:1-5)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실행된 것은 아니었으며, 오래 계속되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당시 성도들의 교제의 표현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성경적 입장을 떠나서도 사유재산제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첫째, 인격의 충분한 발달을 위하여 이 제도는 요청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적 불안정은 가장 밀접하게 인격적 불안정에 결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는 사유재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 부모의 품안에서 안전을 느낄 수가 있으나 성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현대 공산주의가 이 일을 말아 해보려 하였으나 그 결과는 어떤가? ...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그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써만, (예. 주택, 옷, 가구, 돈 등) 힘을 얻는 것은 안전과 개인적 독립에 대한 깊은 갈망이 이루어졌다는 안전감을 느끼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있는 것이다.

둘째, 현대 세계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사유재산제도가 실질적으로 확인된 곳에 경제적 능률

과 생활 수준이 그만큼 더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재산권 제도가 확보된 나라가 봉건주의 또는 어떤 공동 소유주의 형식을 채용한 나라보다 더 진보되고 풍부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 재산 사유와 사업과의 관계다.

사유 재산권은 경제적 기업 의욕에 필요 불가결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사유재산제도의 필요성에 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것이 전적으로 기독교적이며 반드시 유익한 것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제도 안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포함되어 있어 최악된 요소가 계속적으로 도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어 제도에서 파생되는 몇 가지 악의 요소를 또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 가장 흔한 악의 요소는 취득욕을 조장하는 일이며, 이에 따르는 자기 과장, 자기 의(義),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책망한 물질숭배사상과 신뢰의 성행이다.

둘째, 빈부의 차가 너무 심해지는 바로 그것이다.

이같은 소유의 불균형 상태는 어느 세계에나 있었던 것이지만 특히 오늘에 있어서는 이것으로 인하여 사회에 치명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완전한 평등은 기대할 수 없으나 빈부의 차가 극심해지는 것은 악의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규정을 제시한다면 ① 누구든지 그의 건강과 교양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받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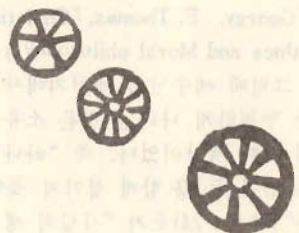
하며, 그 밖에 약간의 저축과 회사(giving)가 가능할 만큼 여유를 갖고 불안없이 살아 갈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사정을 몰라 보고 자기 영혼에 과몰을 가져 올 정도로 많은 재산에 포위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경제적 소유와 권력과의 결부다. 그렇다고 이것 자체가 전적으로 악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권력이란 건설적으로 선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독단성을 나타냄 없이 여러가지 선한 사업에 크게 공헌한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권력 사용이 부자의 주변에 가까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유혹에 성공적으로 항거한 부자가 드물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재산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는 개인 혹은 집단이 재산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사람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 자신이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양심은 언제나 간접적인 책임에 민감하여야 하며, 자기 능력이 미치는 한 그것이 정당하고 창조적인 목적에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언제나 자신이 행동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기도와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어진 의무라 하겠다.



하나님께 영광돌린 아름다운 밤

충현초등부성가대 수준 높아

김 하 진 목사

(성가부·성경학원지도)

지난 5월 13일(화) 저녁 7시부터 동양 최대의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한국기독교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극동방송」과 「기독교방송」이 후원한 제2회 「어린이성가대합창제」 (Children Sacred Choir Concert)가 열렸다.

이날 저녁 인천 중의감리교회를 비롯해서 양문장로교회, 동안장로교회, 인천송림중앙교회, 무학장로교회, 시흥제일성결교회, 새문안교회, 충현교회, 순복음교회, 서울기독교어린이교향악단의 순서로 출연하여 관람석을 꽉 메운 청중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아름다운 밤이었다.

필자도 이날 참석하여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주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한국 교회가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교육진흥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연합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노고에 치하를 보내고 싶다.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자부심과 큰 꿈을 안겨 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날 출연한 성가대들이 참으로 훌륭한 찬양을 불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좀 시정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 합창단 구성 인원이 대부분 순수하지 못했던 것 같이 느껴졌다. 어린이 합창제가 아니라 청소년 합창제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도 하였다.

순수하지 못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대부분의 교회가 중학생들을 출연시키고 있었던 것 같다.

둘째, 음악적으로도 좀 더 아름다운 찬양을 바쳐야 할 것이다. 대부분 두성 발성을 시켰는데 무리한 소리만을 강조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가볍고 기쁜 마음을 주는 대신 부담감을 안겨 주었다. 아마 이러한 합창단을 지도한 지휘자는 넓은 장소에 너무 신경을 썼던 것 같다. 어떤 합창단은 포르테(f)만 강조할 뿐

아니라 고음을 무리없이 처리했어야 했음에도 강제로, 억지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저음 처리와 가사전달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처리했으면 좋았을 듯 하였다.

셋째, 육성으로 노래한 교회가 두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교회들 말고는 거의가 무리한 곡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성인 성가대들도 처리하기 힘든 곡들을 나이 어린 성가대에 적용시켜 보려고 수고는 많이 했으리라 생각하나 그것이 오히려 잘못생각한 것 같다. 물론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부를 수 있는 성가가 많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아이들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좀 더 쉽고도 아름다운 곡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다.

네째, 복장과 율동이 좀 어린이다와야 하겠다. 격에 맞지 않는 의상은 어린이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복장도 애들다왔으면 좋겠고 지루함을 덜어 주기 위한 율동도 어린이다운 율동을 구사해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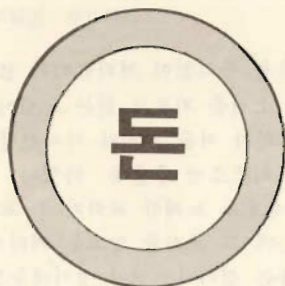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들은 좀 시정이 되었으면 한다. 그렇다면 좀 더 훌륭한 합창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지적한다면 좀 더 세련된 합창을 구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 주최측에서도 교회 선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겠다.

이날 저녁 육성 발성으로 노래한 두 교회가 음악적으로는 부족한 점들이 있었으나 어린이에게 맞는 곡을 선정해 불렀다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되며 복음성가를 집속곡으로 부른 것 역시 부담감 없이 들으며 웃을 수 있는 청량제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수준 높은 찬양을 불렀던 교회는 맨 마지막에 나와 찬양을 해 준 충현교회 초등부 성가대가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이 성가대가 보다 더 아름답고 순수하게 발전되어 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조 현 명 장로

(월간중현 편집위원장)

구약에서 부(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되어 있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요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람이 풍부한 물질에 둘러싸여 재물의 종이 되는 것은 비탄 받고 있다. 예수님의 교훈에서는 부한 재산도 전면적으로 부정되어 있

지 않다.

그러나 재물에 마음이 잡힌 젊은 부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심히 어렵도다'라고 한탄케 했다.

또 물질에 마음을 의지하는 부한 농부의 비유에서 그 어리석음을 훈계했다.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보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은사와 마찬가지로 각 사람에게 맡겨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사용할 것이다. 즉 이것을 사사로이 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돈이란 나라에서 만들어 일반을 통해 쓰게된 재물을 말하며 교환의 매개(媒介), 지불의 수단·방편, 가격의 표준, 축적(蓄積)의 목적물로서 쓰이는 물건으로서 금, 은, 구리 그 밖의 다른 쇠붙이들로 크고 작게 만들었는데 그 모양과 값이 여러가지가 있고, 현금에 있어서는 지폐(紙幣)도 포함되어 있으며 금전, 화폐를 말한다. 또 황금이란 순금(純金), 누런 금의 뜻도 있으나 금전, 돈, 화폐를 말한다.

성경에 유대인들은 적은 액수의 돈을 구리(銅) 즉 동전을 허리띠에 넣고 다니는 관습이 있었다. 구약에서는 가끔 은이 돈(金錢)으로 번역되었고 화폐로서 사용했던 것이며 신약에서는 은이라고 한 것은 은전(銀錢)을 의미한 경우가 있다.

주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 중 약 절반이 금전에 관한 것이다. 돈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수중에 들어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여지나, 욕심 많고 이기적인 자들의 수중에서 돌아나면 그들 자신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악마의 놀음을 한다.

자기의 선생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는 통회한 나머지 자살하였고, 요셉은 형제들의 미워함과 자신의 꿈으로 인하여 은 20에 애굽으로 팔려갔고, 삽비라의 남편인 아나니아는 현금을 때에 속이므로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곧 죽고 말았다.

주의 사업을 위하여 돈을 아낌없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내는 것으로 그 표준을 삼는다면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짧은 자본으로 영원한 내세를 얻는 영리하고 가장 이상적이며 성공적인 완전한 투자(投資) 방법이라 하겠다. 돌고 도는 돈은 내 것이 아니고 사는 동안 임시로 맡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우리가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딤후 6:7)라고 말씀하셨고 '수의(壽衣)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말도 생겼다.

돈을 가장 중한 것으로 여겨어 존중하는 배금사상(拜金思想)이 지나치게 농후해지면 돈을 우상화하

게 되고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며 불의의 수단으로 재물을 쌓는 탐욕(貪慾)이 생겨 살인(殺人)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이르기도 한다.

신약에는 재산 많은 것이 곧 죄라거나 가난한 것이 곧 선(善)인 것은 아니며,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으며 어떤 데 그것을 쓰느냐가 문제라고 하였다. 모략과 포악으로 재산을 모아 쌓아 두는 데만 열중하며 그것을 육욕(肉慾)을 만족시키는 데 낭비하는 자들의 말로(末路)는 신속한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삼으려 말미암아 얻는 말할 수 없이 귀한 특권을 생각할 때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받아 들임으로 실제 그가 전에 귀중하게 여겨 오던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긴 바울의 욕망은 세상 사람의 욕망과는 판이(判異)하였다.

우리들은 돈이라면 사족을 못쓰고 좋아하다가 저주(詛呪)를 받은 프리지아(Prygia) 옛 회람의 미다스(Midas) 왕 이야기를 알고 있다. 디오니소스(Dionysus)신이 그에게 무엇이든 손대는 것은 다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주었다. 그래 처음에 그의 모든 가재 도구를 돌아다니며 다 황금으로 만들어 버렸다. 모두 순금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미다스는 미칠듯이 좋아 소리를 질렀다. 음식마저 황금으로 변해 버리고 달려드는 어린 딸을 얼싸안자 순식간에 황금상(黃金像)으로 변하여 떨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것은 돈을 사랑하는 자의 저주스러움을 여실히 드러내는 이야기라 하겠다. 돈에 대하여 과분한 욕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찢겠도다'라고 돈에 대한 애착을 더하게 되면 그 뿌리에서 모든 종류의 악이 일어나며 이러한 욕심에 몸을 맡겨버리는 자는 보통 진리에서 벗어나 많은 문제를 자기 몸에 끌어 일으킨다고 말하였다. 또 잠언에는 '비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사람들이 인간적인 지혜로 재물을 탐하는데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성경에는 금과 은의 비유가 있다. '달란트'(금) 비유는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있어서 비록 기회와 능력은 다를지라도 같이 충성스러운 자는 같은 상급을 받을 것을 가르치는 것이요, 은 비유는 기회가 같을 때에는 많이 충성한 자는 많이 상급을 받을 것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 일이다. 어느해 구정(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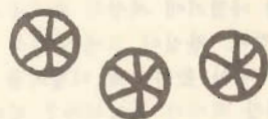
正)에 직장 과원 몇 명이 근처 중국인 식당 주인의 점심 초대를 받았다. 알고 보니 그 집 어린애 백일이었다. 정말로 정성을 다한 산해진미(山海珍味)가 계속해 나옴엔 감탄할 정도이었다. 그 좌석에서 L씨는 기분이 좋았었음인지 돈을 긁어 모으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뱃속을 보여줌에 아연실색(啞然失色)치 않을 수 없었다. 거침 없이 나오는 그의 복안(腹案)은 지금까지 어느정도 돈을 모았으니 좀 더 모으고 퇴직하겠다고 장담(壯談)하였다.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잠30:8)와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빌 4:12)의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온 본인은 부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고 가난하다 보면 도적놈이 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환경 속에서라도 바울이 개선(凱旋)의 노래와 찬미를 부를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이 부러웠던 본인은 L씨가 마치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시10:3)로 보여 측은(惻隱)한 사람으로 보였다. 탐욕(貪慾)은 정죄의 대상이 됨을 염려하기 때문이었다.

그 후 L씨는 그때만 하더라도 혼하지 않은 종합 진단을 받고 폐어버릴 것 다 폐어버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계획하였으나 불행하게도 퇴원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물질에 마음을 의지하는 농부의 비유는 재물은 사람에게 참 행복을 주지 못하고 생명을 연장시키지도 못한다는 것을 잊어 버리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눅12:20~21)

행복이란 소유한 물질의 다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꾸며 나가는 마음 자세에 달려 있는 것이다. 즉 범사에 자족(自足)할 수 있는 마음 자세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셔 들임으로써 갖추어 지는 것이며 그러한 기회와 능력을 주심에 감사하는 자가 행복자일 것이다.



* 신앙간증 *

신앙을 고백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의 있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체제화 시킨다는 것이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나의 신앙고백을 하려면 어릴때 부터 이야기 해야겠다. 모태적 부터 교회에 나왔고 또 예수님을 알았다. 어려서는 정말 신실한 어머니 곁에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았고 또 가끔 들려주시는 모세이야기, 요셉의 종살이 이야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히 들려 오는 것 같다.

그 속에서 한동안 나는 숨막히는 생활을 해야 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니까? 정말 교회에 가서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던 과거에 나는 내가 아니었던가, 감정적인 마음에서 였는가?

출근길에서 차속에서 손수레에 배추, 무를 싣고 열심히 팔러가는 아낙네를 볼 때 정말 엎드려 절하고픈 마음이 생길 지경이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세상이 무엇인데?

어느날이다. 항상 찬송이 끊이지 않는 엄마를 한



나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굴복

홍 성 우

캄캄한 밤, 고요한 방안에 어머니의 사랑에 가득찬 성경이야기! 정말 그때 나는 초롱 초롱 눈을 빛내며 어머니의 성경이야기에 빨려 들어가 꿈에 나라를 떠돌 때를 기억한다.

그속에서 자랐고 나의 신앙, 믿음을 방해할 아무런 요소도 없이 순수한 믿음의 그때가 아니었던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몇단계를 걸치게 되었다.

국민학교를 들어갔고, 또 중학교를 들어가며 학교 생활을 하게된 나는 언제부터인지 깊이 생각하고 의심하는 또 주일이면 재미있게 놀러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고 많은 문학작품과 사상집을 즐겨하던 고교시절속에 나는 이제 어머니의 신앙 품속을 떠났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도전자로 변해 있었다.

주님을 내머리로 이해하고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에 착실히 나왔고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 달까? 외면적으로는 손색이 없는 습관적인 믿음이고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나에게는 하나의 일반적인 지식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나에게서는 확신되기 까지에는 많은 회의와 시련이 연속되고는 하였다. 진실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나였기에 세상의 즐거움과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컸다. 관심이 크면 클수록 내마음에는 더 큰 허무가 찾아 왔다. 왜 이렇게들 열심히 사는 것인가?

세상 재미가 무엇인가? 헛되고 헛되고 헛 되다는 독백, 허무, 허무, 왜, 왜, 왜 나는 살아야 하는가?

없이 바라보고 있다.

「엄마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

나는 하나님이 안계신것 같아. 얼마가 믿는 하나님은 엄마의 하나님이이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정말 정말 왜 이렇게도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어 누구한테서도 해결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엄마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실컷 울었습니다. “너 시험 들었구나?” 여러번 하나님이 계신것을 확인한 내가 어찌 이렇게 돼버렸니? 쓸데없는 책보구, 요즈음은 새벽기도두 안하구, 친구들이나 만나구 늦게 집에오니 성령님이 떠나신거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안다구, 어리석은 이야기 하지 말아! 인간의 지혜는 지식은 그 밝은 태양빛에 촛불의 밝기에 불과하단다.

촛불은 해의 빛속에 하나의 그림자 밖에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빚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또한 주신 것인데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하는것은 정말 어리석지!”

엄마의 신앙을 무시하고 맹목적이요, 구복적인 신앙이라 비웃었지만 이제 다시 생각해 보았다. 사실 그럴지도 몰라. 내가 너무 어리석구 너무 망령된건가? 나는 문득 시편 53편 1절이 생각났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나는 어리석은 자임을 깨닫게 되었고 도마 같은 지난날이 무척이나 부끄러워만졌다.

이러한 회의가 지난간 나의 신앙은 무척이나 달라

졌음을 느꼈다.

풀 잎사귀 하나를 들여다보며, 꽃의 정교함과 개미의 돌아다니며 먹이를 물고가는 모습과 또 내가 걸어다니며 음식먹고 돌아다니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 별차이가 없지 않을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였다는 건 너무 무지한 일인 것이다. 훈훈한 봄바람, 찌는 듯한 더위, 소나기 찬바람, 흰눈, 하늘과 땅, 모든 짐승, 채소 모두 새롭게 보이고 느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마음에 찬양하라 노래하라 창조자의 영광을"하며 내마음속에 파도쳐 지나가는 아니 넘쳐흐르는 이 찬송 정말 창조자, 전능자이신 주님을!

만물을 보아 알찌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속에서 사실 만물을 보아 깨닫게 되었고 또 그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하심을…….

그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인간에게 그 수난당함도 허락하시며 우리를 그 아름다운 천국에 데려가려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나를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며 우리죄를 친히 지시고

세상에 오신 마귀간의 예수님, 머리들 꽃이 없이 사셨던 예수님! 십자가의 수난도 온전히 견디시며 우리 죄를 구속하신 주님!

너무도 아름다우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이복음 땅 끝까지 전하여야 한다는 이 말씀이 더욱 내마음에 맺혀온다.

이제는 지정의(知情意)가 일치된 신앙을 고백해본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충현의 모든 성도는
어린이로 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책임이 있으며 똑같이 힘써야 합니다.

*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
십시오.

*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가정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
십시오.

*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교회 전체나 각 지회가 실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
하며 힘쓰십시오.



〈25년전 오늘의 충현교회당을 지을때
유·초등부 어린이들도 마음과 힘을
합하였다.〉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선교월보

선교월보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인도네시아 - 서 만 수 선교사외 가족 3명

1. 한철하목사를 비롯한 한국목사 6명이 방문하여 교회성장 세미나 및 부흥집회를 3월 3일 개최하다.
2. 80년도 제 1차 오지순회전도 마쳤다.

●기간 : 3월24일 - 27일 (1/4분기)

●장소 : 다음 13곳

① 비착교회 : 장년 40명회집이며 건축허가 나오는데로 예배당건축 기공예정

② 두꾸말릴교회, 룸봉마스교회, 뿌차왕이교회 : 각기 예배당 보수공사 예정

③ 떼갈웨로교회 : 이교세력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이를 위해 기도가 요망된다.

④ 뽀데안교회 : 계속 부흥으로 인해 예배당 일부를 증축중에 있다.

⑤ 수디모로교회, 바갈란교회 : 건축허가를 얻는데로 공사착수 예정

⑥ 워노기리교회 : 마르판도전도사의 개인사정에 의한 타지역으로 이주로 인해 공석중, 후임자를 위해 기도요망

⑦ 무띠한교회 : 교회건물 일부 수리중

⑧ 뿌라치만도로 웅구당교회 : 기반안정됨

⑨ 워노사리교회 : 더 큰 예배처소로 옮겨 부흥중, 새로운 사역자 파송예정

⑩ 뿌충교회 : 날마다 부흥중

* 기도제목 *

1. 비재연장수속이 완결되어 80년도 말까지 체제확정이 되다. 할렐루야!
2. 개혁지 교회건축 계획이 차질없이 계속되도록
3. 재차르한 한인연합교회 부교역자 속히 물색되도록

홍콩 - 홍종만 선교사외 가족 6명

1. 중국의 성도들에게 다음을 전달

① 성경, 찬송, 설교 카세트

② 셀양경전서적

③ 각종 기재대금 및 여비보조

2. 중국선교기관에 선교비 보조

3. 중국의 한인성도들과 편지교신

4. 홍콩한인연합교회

① 4월 6일 부활주일예배

② 4월 15일 - 19일 부흥회 (감사 : 임승원목사)

③ 4월 19일 - 21일 수양회

5. 마카오선교교회 (염영택목사)

① 회집 : 장년 10명, 아동 50여명 (중국인)

② 활동 : 전도, 구제활동, 영어학습반설치운영

* 기도제목 *

1. 중국을 위한 "기도편지"로 인해 많은 결실이 맺어 지도록
2. 홍콩한인교회의 부교역자 파송을 위해
3. 중국의 교포선교가 잘 진행되도록
4. 중국에 보내는 모든 것들을 통해 많은 결실이 맺어 지도록

애굽 - 이준교·김신숙 선교사외 가족 모두 6명

1. 카이로한인연합교회

① 성경통신강좌 배부

② 학습세례문답 실시

③ 세례식 및 성찬예식 거행

2. 아랍어 훈련중

3. 신학교 도서관에서 문서선교중

4. 헬리아 폴리스 가정교회 및 동산살렘 현장에배 인도중

5. 감선교사 시내광야 및 시내산 답사여행

6. 이선교사 바라모스 수도원 방문

7. 애굽 선교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가 - 현재 노회 수 8개, 신자수 7만명

* 기도제목 *

1. 애굽 농촌 제교회를 지원하는 일
2. 두 선교사 가족들에게 영육의 건강을 위하여

서 독-육 호 기 선교사와 가족 3명

1. 부활절 연합예배 - 4월 6일 비스바덴 한인교회에서 실시
2. 뷔츠부룩한인교회 부흥회 - 4월 16일~20일 까지 (강사: 김혜성목사)

* 기도제목 *

1. 세 교회의 부흥과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2. 현지 선교를 위한 준비를 위하여

호 주-김 태 현 선교사와 가족 4명

1. 멜본한인교회
 - ① 결혼수속
 - ② 성찬예식 거행
 - ③ 교인심방(20회)
 - ④ 금요기도 및 성경공부(매주 1회)
 - ⑤ 영어공부

* 기도제목 *

1. 교회성장을 위하여
2. 호주선교를 위한 기도회원들의 규합을 위하여
3. 청소년들의 신앙지도를 위하여
4.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아르헨티나-백 성 룡 선교사와 가족 4명

1. 재아중앙교회
 - ① 공동의회에서 장로 2인, 권사 3인, 안수집사 1인을 각각 선출
 - ② 성례식 거행(수찬자 168명, 문답자 35명)
 - ③ 현재 크게 부흥중(회집수 200명)
2. 본부의 선교주일학교생에게 편지우송

* 기도제목 *

1. 목사님과 온 가족을 위하여
2. 남미선교를 위하여

일 본-유 병 세 평신도선교사와 가족 4명

1. 병원대합실 및 입원실 전도 계속
2. 이윤호권사 부인성경반 인도
3. 가두 노방전도실시
4. 부활절예배(4월 6일)후 한국음식 대접



〈아르헨티나의 재아중앙교회에서 백성룡목사님 위임 식예배를 마치고 (1980. 2. 5)〉

5. 새벽기도회 계속실시
6. 4월 20일 설교인도(막16: 12-18 부활신앙)
7. 환자에게 계속전도

* 기도제목 *

1. 유선교사님 내외의 영육의 강진을 위하여

서 독-박 용 삼 평신도선교사와 가족 2명

1. 박사학위 논문 재수중
2. 4월 3일까지 공장에서 일 계속중
3. 독일교회에 한국기독교에 대하여 소개함 - 현재 독일은 선교에 무관심

인 도-엘리아 겔간 선교사

* 기도제목 *

1. 현지선교를 위한 준비가 잘 되도록
2. 인도의 6억 5천만 영혼을 위하여 활발한 선교 운동이 일어나도록

본 부-해외복음선교회

* 기도제목 *

1. 선교행정의 전문화가 되도록
2. 선교자료실 설치를 위하여
3. 선교후보자 훈련센터 건립이 마련되도록
4. 현지선교사들의 자녀교육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4 월중 새 교우 명단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1 지구

동 송 구 역	서원아	종로구 동송동 아파트13동204호
광희 ② 구역	김업천	중구 을지로 5가 72번지
광희 ① 구역	임화중	중구 광희동 1가57, 5/2
삼양 ③ 구역	황영범	도봉구 미아5동1264-243, 2/4
삼양 ① 구역	방현주	도봉구 미아2동 791-2956
삼양 ① 구역	안삼례	
창신 ① 구역	조해경	종로구 창신동 7-19, 2/4
광희 ② 구역	유 순	중구 을지로 5가 77-4
광희 ① 구역	이수협	중구 을지로 6가 21-29

● 2 지구

쌍림 ② 구역	김영자	중구 쌍림동 270, 4/6
신당 ③ 구역	윤복실	중구 신당동 304-223, 13/3
태 능 구 역	이정임	호평리 396
태 능 구 역	김연옥	경기도 양주군 미금읍 호만272번지
마 장 구 역	이혜숙	성동구 마장동348, 26/6
면목 ③ 구역	황점순	동대문구 면목 7동 655-3, 5/3
신당 ② 구역	김태윤	중구 신당동 304-417, 22/3
중곡 ③ 구역	이영출	성동구 중곡동 114-23, 13/3
신당 ② 구역	김수경	중구 신당동 1가 304-495, 18/3
중곡 ① 구역	최미영	성동구 중곡3동 중곡아파트 6동206호
문촌 구 역	김기수	강동구 문촌동주공아파트2단지218동104호

● 3 지구

성수 ① 구역	김춘실	성동구 성수동 2가 345-7, 19/1
금 호 구 역	김원희	성동구 금호동3가 1073, 16/3
잠실 ① 구역	고재남	강동구 잠실1동 주공아파트99동307호
도곡 ③ 구역	이기옥	강남구 도곡동 영동아파트54동402호
이태원구역	최은숙	용산구 이태원동 59-12, 2/1
강남 ③ 구역	전계식	강남구 서초동 690
시영 ① 구역	최길수	강동구 잠실4동 시영아파트39동15호
청담 ① 구역	오광순	강남구 청담동 78-21
성수 ① 구역	윤순전	성동구 성수동2가 299-229, 34/4
도곡 ③ 구역	은용기	강남구 도곡동 영동아파트 28동410
잠실 ④ 구역	한명희	강동구 잠실3동 371동 112호
이태원구역	최명규	용산구 이태원동 63-34, 3/5

● 4 지구

필동 ⑤ 구역	송영강	중구 필동
필동 ⑤ 구역	박귀녀	중구 필동 3가 27번지
반포 ① 구역	한명교	관악구 동작동307반포아파트34동 108호
반포 ① 구역	김종욱	관악구 동작동 307 반포아파트5동 207호
봉천 ③ 구역	김주복	관악구 봉천 3동 4-21, 13/1
사당 ② 구역	이영호	동작구 사당동 성전연립주택 11동 202호
사당 ② 구역	정종섭	관악구 사당동 산31-3
필동 ⑥ 구역	이종만	중구 필동3가 21-32, 6/10
봉천 ② 구역	장동영	관악구 봉천6동 장미원아파트 나동106호
안 양 구 역	김재섭	경기도 안양시 안양6동 동아아파트502호
신림 ② 구역	정미예	관악구 신림동 423-27, 23/4
대 방 구 역	이연희	관악구 봉천1동 698-27, 5/4
진 양 구 역	한정희	중구 충무로4가 120-3,

● 5 지구

인 천 구 역	정용관	인천시 간석동 350, 41/208
서대문 ① 구역	정명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서대문 ① 구역	이대영	마포구 아현동 85-352, 12/3
홍 제 구 역	이순애	서대문구 홍제동 안산아파트4층 306호
명 료 구 역	홍옥순	종로구 명륜동 169
명 료 구 역	송석흠	종로구 명륜동2가 169-1
명 료 구 역	김강옥	종로구 명륜동2가 169-1
중 부 구 역	이재철	중구 오장동 69-2

새로·나오신 교우는 장년새신자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년새신자부는 매주일 오전 11시50분에 동관 3층 장년새신자부실에서 모입니다.

* 축하합니다 (4 월중 결혼)

- 문영훈군 (문쾌인집사 아들) 7일 12시 본교회당에서
- 윤경숙양 (윤종성장로, 신군자권사 2녀) 11일 오후 1시 부산 서라벌호텔에서
- 김유순양 (김상득씨, 임금례집사 장녀) 12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 송원근군 (상도 ② 구역) 12시 오후 4시30분 종로에식장에서
- 고석훈군 (봉천 ② 구역) 12일 오후 1시 상도제일교회에서
- 허성국군 (제2성가대원)과 김현자양 (제2성가대원) 14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 이근석군 (이남호집사, 여옥기권사 아들) 15일 오후 1시 타워호텔에서
- 이재홍군 (장위 ③구역) 16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 정홍관군 (정길복씨, 지영실권사 아들) 17일 오후 2시 본교회당에서
- 박운택군 (구정례집사 아들)과 최영옥양 18일 12시 본교회당에서
- 김인철군 (김용보집사, 정삼업권사 아들) 19일 12시 본교회당에서
- 이규성군 (이기영씨, 정교식집사 차남) 19일 오후 2시30분 미국 레세다제일침례교회에서
- 윤보섭양 (장순실권사 딸) 19일 오후 1시 본교회당

에서

- 광현숙양 (광영완씨, 정현영씨 딸) 18일 오후 1시 30분 타워호텔에서
- 강은영양 (강명순집사, 양정옥권사 2녀) 22일 12시 YWCA 강당에서

* 위로드립니다 (4월중 별세)

- 이옥인권사 (김신호장로 부인) 16일 별세 19일 장례
- 김연수씨 (논현 ① 구역) 25일 별세 26일 장례
- 김인근씨 (김선운권사 부군) 25일 별세
- 김형윤씨 (성북구역) 30일 별세 2일 장례

* 권찰수첩 *

성공적인 심방 <2>

심방의 종교적인 목적을 잘 알고 심방할 때 성공적인 심방이 될 수 있다.

1.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한 심방이어야 한다. (롬 1:11~15)

이 세상에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영적인 은사이다. 이 영적은사가 아니면 결코 믿음이 자라날 수 없고 피차 안위함을 얻을 수도 없고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사도 베드로는 성전-미문에 있던 앓은뱅이가 물질적인 구걸을 해 왔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행 3:6) 고 하였던 것이다.

2. 각 사람을 그리스도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 주어야 한다. (골 1:28, 29)

이렇게 하나님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주는대는

- (1)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여 믿게
- (2) 각 사람을 말씀으로 권하고
- (3)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하고
- (4)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힘입어야 되며

(5) 최선을 다하는 희생적인 수고와 봉사가 있어야 한다. 이 일이야말로 권찰들만이 갖는 영적 특권이며 시대적인 사명이다.

3.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써 충성스럽게 살게 하려 함에 있어야 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딤후 2:14)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모두 복음적인 것이다.

- (1)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하는 선한일.
- (2)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선한 일.
- (3)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감사함으로 섬기는 선한일.
- (4) 주님과 그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선한 일.
- (5) 하나님앞에 가서 면류관 상급받을 선한 일.

4.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누가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행복자인가?

- (1) 소극적으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아니 하는 자이며
- (2)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곧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김 재 창 목사 (심방위원회 위원장)

국가조찬기도회

제12회 연례 국가 조찬 기도회가 5월1일 오전 8시 신라호텔에서, 3부요인, 교계지도자, 각계인사 등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어,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자유와 평등과 평화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민주화의 꽃이 피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했다.

이날 설교를 맡은 한기원목사는 설교에서 「믿음있는 성실한 지도자는 아무리 현실사회가 혼란해도 비판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리스도인은 현실사회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의 유일한 해답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성경의 생활원칙을 현실 사회 속에서 차근차근 적용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성경은 정치가, 경제전문가, 군인, 공무원, 여러층의 지도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지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공평과 정의와 평화의 세가지 요소가 실천되지 못하는 정부형태는 오래가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아 지도자는 지도방향과 가치관이 분명해야 하고 현실사회의 진동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5월6일부터 9일까지 충현교회당에서 회집되어 교단의 회합, 나라위한 기도, 참교회상 정립을 위한 세미나 등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기도회는 전국에서 1천여명의 성직자가 참석했는데, 어려운 시국을 지혜롭게 타개해달라고 간구했다.

첫날 개최예배에서 김창인목사

는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를 바로 가르쳐 주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육신의 병, 영적인 병이 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영적수련장으로서의 역할을 명심하여 교회를 통해 실망 받는 일이 없도록 목회자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31차 전국C. E. 총회

기독교청년면려회 전국연합회 제31차 총회가 지난 5일 서울 전농교회당에서 회집되어 새회장에 조용국장로를 선출했다.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위하여」 충성·봉사·헌신을 목적으로 조직된 전국C.E.는 전국 39개노회 산하에 약40만명의 회원들이 있다.

찬송가 통일작업

찬송가 합동 추진위 제5차 정기총회가 5월 2일 개최되어 새 위원장에 한석지목사를 선임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교인 모두가 염원하는 찬송가 통일 작업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기성(基聖) 총회

기독교대한성결교 제35회 정기총회가 5월13일부터 개최되어, 「받는 교회서 주는 교회」로의 사명을 재인식하고 폐회되었다.

이번 회기에서 선출된 총회장에는 김희택 목사이며, 부총회장에는 정진경목사와, 원홍목 장로가 선임되었다.

총회선교사 세미나

총회선교부는 제 3회 선교사세미나를 5월20일부터 23일까지 「만민을 위해 복음의 기를 들라」는 주제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는 각국에 파송된 총회 파송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교 정보 교환과 선교활동 전략논의 등 제 3국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동 세미나에는 김창인목사를 비롯하여 한국 본부에서는 18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감리교 총동원 전도

기독교대한감리교는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웨슬레의 회심 2백42주년을 기념하는 총동원 전도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 주간에는 교회마다 전도대를 편성 축호전도를 실시하며, 전교인이 선교회원이 되어 수납되는 헌금은 개척전도비로 사용한다고 한다.

감리교회는 이번 전도운동에서 교회중심의 교회로서 보다는 「행동하는 교회」로서의 이미지를 굳혀 사랑의 실천면에서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통합총회기구개혁

예장 통합측 총회는 총회 기구개혁 시안을 마련했다.

동 개혁안에 따르면 임원회를 폐지하고 「정책협의회」를 실천키로 하고 사무총장 제도를 두어 행정을 통괄하도록 했다.



6월은 우리 교회가 정한 총동원 전도의 달이다. 이 총동원 전도의 달을 맞아 전도위원회에서는 전 교인을 동원하는 전도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온 교회가 전도의 기운으로 충만한 가운데 전도에 힘쓰게 된다.

총동원 전도의 달 행사계획

1. 목적

민족상잔의 비극의 날인 6.25사변을 맞이하여, 이러한 민족의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은 「민족 음화」밖에 없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러한 민족적 비극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중현의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생활화를 통해 총동원 전도에 서로 먼저 앞장서야 하겠다.

2. 개요

- 1) 일시: 1980년 6월 한달
- 2) 장소: 서울시 전역
- 3) 대상: 전 서울시민

3. 준비사항 및 실시사항

- 1) 15부 주일학교 후보에 게재할 사항.

*주보 광고란 최상단에 광고할 사항.

- ① 「6월은 총동원 전도의 달」
- ② 표어: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님을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하자!」

2) 전도훈련

- ① 각부 주일학교에서는 5월과 6월 둘째 주일까지 1회 이상 전도훈련을 실시할 것.

- ② 1980년 6월 1일(첫주) 저녁 예배시 장년대상 전

도훈련 실시.

3) 전도설교

- ① 6월중에 2회 이상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해 주실 것.

4) 모범전도자 시상

- ① 시상종류: ㉠개인상 ㉡단체상
- ② 심사기간: 1979. 6 ~ 1980. 5
- ③ 각부에서 2명씩 「모범 전도자」를 추천하면, 심사하여 시상함.
- ④ 각 구역에서는 「모범 전도자」 1명씩을 추천하되 활동내역서를 첨부하여 전도위로 보고하면 심사하여 우수한 전도자에게 시상함.

- ⑤ 각부 주일학교는 위 심사기간중의 구체적 전도 활동 사항을 보고하면 우수한 부를 심사하여 수상함.

5) 방문전도

- ① 실시기간: 1980년 6월중
- ② 실시부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산전부, 남·여전도회, 제1, 2, 3성가대, 산업전도회.) 12부서)

- ③ 실시장소: 병원, 구치소, 고아원, 양노원 등

6) 총동원 전도주일 (6월 15일, 세째주)

* 전도 실시지역

- ① 어린이 새신자부~(방산시장일대)
- ② 유치부~(중부시장→목정공원일대)
- ③ 유년부~(중구청→진양상가→대한극장→세운상가)
- ④ 초등부~(쌍림동→목정동→엠배서더 호텔 → 필동)
- ⑤ 중등부~(장충공원→서울운동장)
- ⑥ 고등부~(서울역 일대→교회→퇴계로→서울역)
- ⑦ 대학부~(명동 일대→교회→명동)

모범교사 · 학생 · 학부모 표창

교육위원회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범교사·학생·학부모를 선발 표창하였다.

해마다 5월에 모범교사, 학생, 학부모를 표창하여 온 교육위원회는 금년도 각부서의 추천을 받아 확정, 표창하였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고등부의 최석만군이 특별표창을, 노년부의 최난수권사가 모범자녀표창을 받게 되었다.

특별표창을 받은 최석만군은 현재 영등포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데 지난해에 학급 친구 60명, 전원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학생이다.

각 표창자도 주일학교예배 및

집회시간에 포상식을 가졌고 모범교사와 특별표창은 지난 5월 11일 저녁예배 시간에 포상식을 가졌다.

금년도 각 표창자는 다음과 같다.

1. 특별표창 (1명)

고등부: 최석만(고 2)

2. 모범교사(15명)

백옥자(어새) 김미자(영아) 한정은(유치) 설명옥(어새) 김철영(유년) 황현철(초등) 정희공(중등) 이상현(고등) 송기홍(청년) 이봉섭(장새) 유분홍(장새) 정광호(장년) 천병희(장년) 백죽심(노년) 임태주(선교)

3. 모범학생(15명)

정미혜(영아) 박정연(유치) 박상현(유년) 황옥진(초등) 이현미(중등) 김춘배(고등) 한정배(청년) 이정남(장년) 오춘화(장년) 강지순(노년) 백차순(노년) 이종호(산교) 박영희(선교) 윤석산(선교)

4. 모범학부모(7명)

김석순(영아) 장영저(유치) 정옥남(유년) 김순자(초등) 오화자(중등) 김순이(고등) 최태옥(선교)

5. 모범자녀(1명)

최난수(노년)

당회장 김창인목사 주일설교집 발간

매 주일의 설교를 그대로 수록

당회장 김창인목사의 주일설교집이 지난 4월 27일 주일설교부터 발행되기 시작했다. 이는 주일에 행해진 설교를 그 주간중에 정리, 편집하여 인쇄하여 그 다음주에 책자로 발행되고 있다.

이 주일설교집은 설교내용의 전체를 삭제하지 않고 거의 다 정리하여 실리고 있어 부득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며 멀리 해외나 군대에 가 있는 사람에게도 큰 유익을 줄 수가 있게 되어 있다.

16페이지, 크라운판, 100아트지로 매주 발간되는 주일설교집은 설교내용 외에 뒷페이지는 개인전도를 할 수 있는 전도지가 인쇄되어 개인전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주일설교집의 배포는 신청자에 한하여 배부하는데 국내는 송료포함 1년에 5,000원, 국외는 30,000원의 회비를 내야 한다.



계속 구독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36, 충천교회 주일설교 발행부>로 신청하면 된다.

당회장 김창인목사

동남아로 출국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열리는 선교세미나에 참석, 강사로 수고하시게 되어 지난 5월 20일 오후 5시 비행기로 출국했다.

김목사는 선교세미나가 끝나고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마카오 등의 선교지를 방문하고 대만에 서 부흥집회를 인도한 후 6월 20 일경 귀국할 예정이다.

어린이성가대합창제

초등부 성가대는 지난 5월 13 일(화)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대 강당에서 실시한 제 2회 어린이 성가대합창제에 출연했다.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어린이성 가대합창제는 한국기독교교육진흥원(원장, 원우연목사)에서 주최하여 충현교회외에도 무학교회, 양 문교회, 순복음중앙교회, 동안교회, 시흥제일성결교회, 새문안교

회, 인천송의감리교회, 송림중앙 교회에서 출연했다.

초등부성가대는 이날 「누가 베 문을 두드려」(혹인영가) 「찬양 하라」(John. C. Hallett) 「알렐루야」(W. A. Mozart)를 연주했다. 지휘에 최영희선생, 반주에 이성자 선생이 수고했다.

5월 1 일 저녁에

22대 장로장립식

5월 1일 저녁 7시 30분에 제 22대 장로장립식이 거행됐다.

이날 장립식에는 박윤선박사가 「천국의 장로를 본 받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 주었고, 성도 교회 장경두목사가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 주었다.

이로써 우리 교회 시무장로는 이번에 장립식을 한 이창업·김원 선·오진국·박치민·정하우·이병 학장로의 6명을 합쳐 50명이 된다.

전도용 영화필름

지난해 김창인목사의 미국여행 중 구입한 전도용 영화필름(무디 과학연구소제작)의 우리말 녹음이 끝나 그중 일부가 들어와 시사회를 거치고 각부 주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과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임을 실감할 수 있도록 된 전도, 교육용으로 매우 유익한 영화이다. 현재 보유중인 필름의 제목 및 관람대상은 다음과 같다. (매편 30-40분).

- 창조의 하나님 - 전교인
- 꿀벌의 도시 - 중학생이상
- 위대한모험 - 중학생이상
- 실험실의 신비 - 중학생이상
- 주관자 - 중학생이상
- 생명의 원천 - 전교인
- 수중의 소리 - 전교인

제 6회 농어촌교회교역자 초청훈련 개요

1. 기간 : 1980년 6월 16일~20일 (4박 5일)

2. 장소 : 충현기도원 (경기도 광주 소재)

3. 참가인원 : 100명

4. 교과목 및 강사

- | | |
|-------------------------------|-------|
| 1) 새벽기도회 | 한영철목사 |
| 2) 저녁부흥회 | 김희보목사 |
| 3) 성경공부 | 김희보목사 |
| 4) 심방의 실제 | 김재창목사 |
| 5) 성경과 과학 | 주영홍목사 |
| 6) 구약에 나타난 부활사상 | 김희보목사 |
| 7) 신혼종교가 범람하는 사회적으로인 박영환목사 | |
| 8) 한국교회의 선교적 사명 | 전호진목사 |
| 9) 효과적인 교회행정 | 김종택목사 |
| 10) 주일학교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상우 목사 | |
| 11) 찬송공부 | 김하진목사 |

12) 과학영화 상영

북한선교회

13) 천교의 시간

김연이전도사

5. 준비물 : 성경, 찬송, 필기구, 칠판, 세면도구

6. 기타 (1) 개강예배, 6월 16일(월) 오후 3시 본 충현교회당

* 특별한 이유없이 개강예배에 참석치 않는 경우 본 훈련에 참가를 보류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교통비 : 편도만 지불함

(3) 신청서 마감 : 1980. 5월 31일까지

(4) 자세한 것은 본 학원 지도교역자 김하진목사에게 문의바람

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3, 전화 267-9937, 9738 260-3407, 8

충현교회 성경학원

기도원에서 부흥사경회

충현기도원에서는 기도원에서 매월 2회씩 부흥사경회를 갖기로 했다. 5월 26~30일까지를 시작으로 격주로 모이게 되는데 강사는 기도원 지도 한영철목사가 담당하게 된다. 이 부흥사경회는 연말까지 계속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원을 많이 사용하는 7, 8월은 쉬게 된다.

교회행사 영화제작

우리 교회의 행사 및 각종 예식을 영화(8%)로 남겨 두고 두고 기념하기도 하고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영화 제작을하기로 했다.

지난 4월 8일 새 성전 착공예배를 비롯해, 60회 생신, 결혼식, 장로장립식 등을 촬영했고 앞으로도 계속 행사와 예식 등을 촬영해 영화로 만들 계획이나 이를 위해 교회에서도 8%영사기를 한대 더 구입키로 했다.

부지도 임명

당회는 그간 공석중이던 고등부부지도를 비롯하여 성경학원, 산업전도교육부 등의 부지도를 각각 임명했다. 또한 성경학원에는 장영자선생이 부지도로 됨에 따라 임현진선생(유치부교사)을 직원으로 채용 발령했다.

새로 임명한 각부 부지도는 다음과 같다.

- 성경학원부지도 장영자 전도사(여)
- 고등부 부지도 유희섭전도사(여)
- 산업전도교육부 부지도 박동실전도사(남)

토막소식

*.....감사위원은 5월 한달동안 각 지회의 감사를 실시했다.

*.....기도원은 기도원 진입로 포장공사 및 회장실 동파보수공사를 마쳤다.

*.....남전도회는 회원들의 전도로 결신자가 생기면 매주일 전도용서신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산업전도회는 지난 5월 1일 월례 산업전도회 조찬기도회를 유년부실에서 가졌다.

*.....제 1 여전도회는 4월 13일에 제 1 여전도회가 지원하는 매현교회에 윤형철목사를 모시고 가서 성례식을 인도했다. 또한 군전도의 일환으로 6288부대를 방문, 준비해 간 떡, 과일 등으로 장병들을 위문했다.

*.....제 2 여전도회는 4월 9일에 육군 2사단 17연대를 방문, 장병들을 위문했다. 이 위문은 제1여전도회와 함께 했다. 또한 어린이전도의 일환으로 어린이전도회를 매월 보조하고 있다.

*.....어린이새신자부는 4월 25일 오후 8시부터 영아부실에서 교사연구발표의 시간을 갖고 이어서 교사 철야 기도회 모임을 가졌다.

*.....영아부는 4월 한달을 전체학생심방의 달로 정하고 심방했고 4월 15일 교사연구발표회를 가졌다.

*.....유치부는 4월 20일 학생, 교사, 학부모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경이야기대회를 가졌고 4월 27일에는 자체사무결연을 실시했다.

*.....유년부는 4월 25일 교사를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초등부는 4월 6일 1 학기

성경시험을 실시했고 4월 18일에는 새성전건축현장에서 교사철야 기도회를 가졌다.

*.....중등부는 4월 6일 분반공부를 마친 후 어린이 새신자부실에서 봄심방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고등부는 4월 13일 오후 목요회대향찬송경연대회를 가졌는데 1등에 세종부속고등학교 2등에 영동, 은광고가 각각 입상했다.

*.....대학부는 4월 5일 육군 7895 부대를 위문, 지도교역자와 면려회임원들이 수고했다.

*.....장년새신자부는 4월 13일 오후 장년새신자부실에서 십계명외우기 대회를 가졌다.

*.....장년부는 4월 6일 시내 성도교회의 장년부를 전학했다.

*.....산업전도교육부는 4월 6일 시내 명일동에 있는 직업훈련원을 찾아 교사 27명 학생 14명이 전도를 실시했고 4월 19일에는 학생철야기도회를 가졌다.

*.....선교부는 4월 18일 오후 7시부터 총신대 김명혁교수를 모시고 선교의 이유와 방법에 관한 특강을 들었고 19일에는 특수지역선교의 일환으로 중고등반이 내발산동에 있는 저능아원을 방문 전도했으며 20일에는 대·청·장년반은 안양소녀원을 찾아 전도했다.

인사이동

1. 성가대

가. 임명

제일성가대	최승철	베이스
제일성가대	김종희	소프라노
제이성가대	이해정	소프라노
제이성가대	조윤희	소프라노

제이성가대 서정경 소프라노
제이성가대 강정희 앨토
제이성가대 추정희 앨토
제이성가대 최영철 테너
제이성가대 김태호 테너

나. 퇴임

제일성가대 박영순 소프라노
제일성가대 정명희 앨토
제일성가대 안영자 앨토
제일성가대 이원웅 테너
제일성가대 이일영 베이스
제일성가대 은종원 베이스
제일성가대 강영옥 앨토
제이성가대 김영혜 소프라노
제이성가대 이은미 소프라노
제이성가대 장화선 소프라노
제이성가대 황유경 앨토
제이성가대 김인숙 앨토
제이성가대 김은백 앨토
제이성가대 유은숙 앨토
제이성가대 김종수 테너
제이성가대 오영종 베이스
제이성가대 김형주 베이스
여성성가대 민은애
여성성가대 이군자
여성성가대 이정자
여성성가대 최영실

2. 주일학교

가. 임명

유치부 오해섭(남) 임시교사
유치부 박관숙(여) 정교사
유년부 서정희(여) 임시교사
유년부 양태성(여) 임시교사
유년부 김용인(남) 임시교사
초등부 정태두(남) 정교사
초등부 임정희(여) 임시교사
초등부 조필형(여) 임시교사
초등부 노인덕(남) 임시교사
초등부 최금실(여) 임시교사
중등부 최길수(남) 정교사
장새부 윤재춘(여) 정교사
장새부 송경자(여) 정교사
장새부 권윤행(여) 임시교사

나. 퇴임

영아부 윤봉자(여)

유치부 김철순(여)
유치부 김순화(여)
유년부 박이숙(여)
초등부 양인환(남)
초등부 정정남(여)
초등부 이영수(여)
초등부 김정업(여)
중등부 성덕순(여)

3. 구역권찰회

가. 장로담당구역이동

한명옥장로 - 점직해제(돈암, 보문, 삼선, 동소문, 성북구역)

이창업장로 - 구역담당(삼양② ③ ④, 미아①②)

이병학장로 - 황창룡장로와 복수담당(석관, 이문, 홍인 ① ②, 문화)

정하우장로 - 김영삼장로와 복수담당(상도 ① ② 방배 ① ②)

박치민장로 - 오승룡장로와 복수담당(구로, 당산, 망원, 서교)
오진국장로 - 황기성장로와 복수담당(역촌 ① ②, 응암 ① ②, 홍인 ①)

김원선장로 - 송순일장로와 복수담당(홍은 ②, 홍제, 서대문 ① ②, 청운)

나. 임명

김경식 구역장(충무로 ② 구역)

김영란 권찰(마장구역)

남순자 권찰(인현 ② 구역)

다. 퇴임

박병은 구역장(충무로 ② 구역)

라. 이동

최복인 권사 정릉구역 겸임

이순녀 권사 사당 ② 구역 겸임

이상금권찰 중곡 ②에서 도곡 ②로

각 종 통 계

1980. 5. 4 (매월 첫 주기준)

구분	남	여	계	신	총세대수	3,845
예배	I부	146	313	459	교인총수	3,149
	II부	396	895	1,291		
	III부	389	937	1,326		
	IV부	228	542	770		
주일	주 일 저 녁	195	319	514	교인총수	4,737
	삼 일 저 녁	112	309	421		
	어 린 이 새 신 자 부	41	27	68		
	영 아 부	120	86	206		
유년	유 치 부	124	126	250	세례입교	1,774
	유 년 부	190	200	390		
	초 등 부	183	204	387		
	장 년 새 신 자 부	34	53	87		
초등	중 등 부	135	155	290	유아세례	499
	고 등 부	146	143	289		
	대 학 부	78	71	149		
	청 년 부	55	82	137		
중등	장 년 부	26	323	349	학습교인	241
	노 년 부	37	112	149		
	산 업 교 육 부	24	66	90		
	선 교 부	35	66	101		
장새	새 가 정 부	18	33	51	원일교인	736
	계	2,712	5,062	7,774		

5월행사표

- 4 일 제직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권사회, 임원회 · 재정위원회 · 산업전도회 월례회
- 6 - 9 일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 9 일 전교인 철야 기도회 · 구역예배
- 10일 경로화
- 11일 남전도회, 권사회 월례회 · 산전교육부헌신예배
- 14일 여전도회 임원 철야기도회
- 18일 여전도회 월례회 · 재정위원회 · 선교실행위원회 · 헌
혈
- 21일 권사회 철야 기도회
- 23일 구역예배
- 25일 권찰회 · 전도위원회 · 교육위원회 · 산전헌신예배
- 27일 정기당회

* 편집하고나서 *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에 우리는 많은 행사를 하며 가정의 달의 의미와 또한 가정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곤한다.

지상특강으로 박성수박사님의 「현대 청소년의 문제와 기독교의 역할」을 소개한다. 박성수박사님은 카운셀링을 전공 하였고 또한 청소년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어 오신 분으로, 오늘날 우리 가정에 청소년이 없는 가정이 없고, 또한 오늘날 처럼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하게 가정, 사회, 교회의 문제로 부각된 적도 없는 생활이기에 이 글은 우리 모두에게 귀한 교훈과 방향제시가 되리라고 믿는다.

특히나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의 경우는 더욱 그 나아 갈 방향과 행동의 규범을 바로 정해야 하기에 더욱 중요하다.

*...월간충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지난 4월 정기제직회서 실시하였던 바 결과를 알린다. 월간충현을 만들어 가는 편집진들이나 또 일부 관심있는 사람들 조차도 월간충현이 독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왔었다. 차제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퍼센트 이상의 사람들이 월간충현의 유익성과 깊은 관심있음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편집진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게 되었고 또한 한층 격려되어 모두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월간충현으로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 1980년 월간충현 조직*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편집 위원 / 김하진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손경수 오태용 김종주

이형수

월 간 충 현

5 월호

제 8 권 제 5 호

통권 제 77 호

1972년 4 월 30 일 창간

1980년 5 월 25 일 발행

발 행 인 / 김 창 인

주 간 / 윤 형 철

편 집 인 / 조 현 명

편집부장 / 이 형 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장 로 회

100 - 서울 중구 충무로 5 가 36

260 - 3407 · 3408

효과적인 상담은 ?

성령을 떠나서는 할 수 없어

질문 / 어떻게 하면 상담(Counseling)을 원하는 사람(Client, 來談者)들의 문제를 카운셀러(Counselor, 相談者)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적인 측면에서 상담에 관하여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대인들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다.

특히 현실과 신앙과의 윤리적인 조화를 이루어 생활하지 못하는 오늘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교회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상담(Counseling)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에 응해줘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성경적 상담(Biblical Counseling)이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딤후 3:1-5에 말하기를 “네가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 상담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는 줄 안다. 이렇게 상담이란 인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정신적 건강 측면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영적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사야 신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훌륭한 상담자”(Wonderful Counselor)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예수님은 이미 죄로 인하여 영적 고민에 쌓여 있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가장 훌륭한 상담자로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은 “패역하고”(사 1:5-6) “고통 당하는 자”(딤후 3:1)들의 심령에 병든 문

제를 “보고 들어 주는 것”(행 22:15)이며 “빈약한 자를 권고”(시 40:1) 함으로 “영을 지키는 것”(요 10:12)이다.

그래서 “영혼의 소생”(시 23:3)을 통하여 “선한 복자로 양들을 위하여 사는 자”(요 10:11)로 만드는 것이 상담의 궁극적 목적이라 하겠다.

이같이 상담이란 언제나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 (Two-Way Communication) 그렇기 때문에 일방 통행(One-Way Communication) 식인 강의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상담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상담자가 중심이 되는 지시적인 방법(Directive Method) 보다는 상담을 원하는(來談者) 사람이 중심이 되는 비지시적인 방법(Non-directive Method)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공부를 하기 싫어 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공부시키는 것(지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왜 그 애가 공부하기 싫어하는지 그 원인을 스스로 찾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려서 공부할 수 있는 의욕을 스스로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비지시적인 방법)을 말한다. 다시말해 폭식을 억지로 자라나도록 무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자라나도록 여러가지로 도와주는 것을 뜻한다. 이 방법을 주장한 사람은 칼 로저(Carl R. Rogers)인데 “효과적인 카운셀링이란 래담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하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걸어 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고 정의했다. 그러나 아담스(Jay E. Adams)는 로저스의 이론에 반대하여 성경적 상담 이론을 개발하여 “상담이란 성령의 사역이다. 유능한 카운셀러는 성령을 떠나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같이 성경적 상담이란 성령의 사역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김 하 진 목사 (성가부·성경학원지도)

실로암
못가에서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6장 4절〉